

문학은 한 시대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문학평론가 30인에게 90년대를 대표할 작가와 작품을 시·소설 각 분야 두명씩 추천받았다. 신경숙은 개인의 내면을 파고드는 반성적이고 내밀한 문체가 90년대적 감수성을 잘 살렸고 얼마전 타계한 최명희는 보기 드문 장인정신으로 평가받았다. 육화된 대중문화를 끌어들이는 유희와 80년대의 노동자 시인 백무산이 나란히 벌써 이채로운데, 세계관이 다른 문학의 공존 역시 90년대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시대성 떠나 늘 새롭게 읽히는 작품을”

《외판방》의 작가 신경숙

1991년 첫 소설집 《겨울우화》를 발간했다. 1993년 발표한 두번째 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로 작가의 문학성이 독자의 욕구와 부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며 단번에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이후 《깊은 슬픔》·《외판 방》·《오래전 집을 떠날 때》가 모두 독자와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소설가 신경숙(36)을 얘기하면서 90년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거나 혹은 그 반대다. 그에게 90년대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90년대가 지나가는 동안, 작품 쓰는 일에만 너무 매달려서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제 책들은 모두 90년대에 나왔어요. 딱히 90년대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이습기는 하지만, 글썽요. 개인적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오

는 시절이었는데, 쓸쓸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죠.”

당대의 소설가에게 ‘00년대 작가’라는 월계관을 씌우는 일이 행복한 일만은 아니다. 더구나 그가 지금 30대를 지나가고 있다면.

“사실 그렇죠. 제가 90년대에만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연대가 바뀐

다고 다르게 쓸 것도 아니고, 어떤 작품이든 10~20년 후에도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성은 저어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해요. 늘 새롭게 읽히는 작품



이어야지, 시대성에 갇혀서는 곤란하겠죠. 또 제 소설에 사람들이 말하는 현란한 90년대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지도 않네요.”

최근 신경숙씨는 세번째 장편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를 발표했다. ‘작가의 말’에서 그는 익명의 개개인이 지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오묘한 힘이 사랑을 만났을 때의 파장을 얘기한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된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2천년이 찾아올 것도 아니고... 오늘 다음 내일,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쌓여 어느날 2천년이 시작되겠죠.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고 새롭게 쓸 것도 없을 테죠. 그저 지금의 연장선상에서 작품을 쓸 거예요.”

벌써 《기차는...》를 다 읽은 성마른 독자들에게.

“앞으로 쓰고 싶은 얘기는 서너 가지 있어요. 《풍금이 있던 자리》에 실렸던 단편 〈베드민턴 치는 여자〉를 장편으로 고쳐 쓰고 싶기도 하고, 결맞은 새 형식만 찾아낸다면 어머니에 관한 소설도 쓰고 싶어요. 아, 그러다 보면 2천년대도 시작될 듯 하네요. 말이 되나요?”

그러고는 아주 밝게 웃음을 터뜨린다.

—김연수 기자

‘인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혁명시인

《인간의 시간》의 백무산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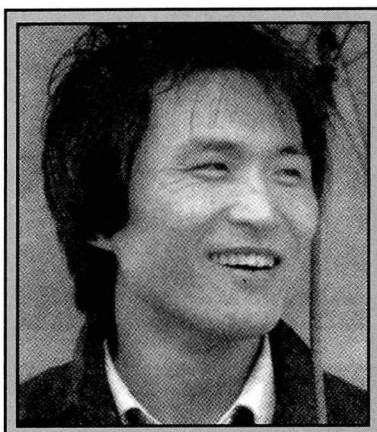
1989년 문학과지성사가 주관한 제1회 ‘이산문학상’ 수상작상. 자유주의적 문인·교수들로 가득찬 식장에 남루한 단색 점퍼 차림의 한 시인이 나타났다. 그는 연설에 앞서 멀리 지방에서 상경한 노동자들과 쇠소리 같은 목소리로 노동해방의 구호를 외친 후 노동해방가요를 우렁차게 합창했다. 노동해방의 시대적 당위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마친 후 동료들과 식장을 빠져나갔다. 그가 바로 ‘노동해방의 시인’ 백무산(44)이었다. 문학평론가 임우기가 회상하듯이 ‘어둠 속에서 어둠에 맞서는 수직적 화염의 이미지’ 그대로다.

80년대 김남주의 《나의 칼, 나의 피》,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등과 함께 뛰어난 미학적 성취를 거둔 작품으로 평가받는 《만국의 노동자여》의 시인 백무산이 세번째 시집 《인간의 시간》(창작과비평사, 1996)으

로 90년대 대표시인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소비에트의 붕괴 후 돌림병처럼 번진 진보적 지식인의 패배주의와 부박한 상업주의 속에서도 ‘변혁적 정신의 일관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영진 시인은 “인간의 시간”은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90년대를 통과해 나온 자의 정직한 고통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갈등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는 그의 시 〈경계〉에서 잘 드러난다. “옛길 버리고 왔건만/새 길 끊겼네//...



//길을 가는 데도 걷는 법이 있는 것/지난 길 다 버린 뒤의 경계 //아, 나 이제 경계에 서려네/칼날 같은 경계에 서려네”라며 ‘경계’에 선 자의 고뇌와 신생(新生)의 다짐을 노래한다.

표제작 〈인간의 시간〉은 노동해방의 전위적 ‘전사’가 노동해

방의 실천 속에서 자연해방의 당위를 깨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대지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을 거역한다/소모와 죽음의 행로를 걸어온/날로 썩어가고 황무지만 진전 시켜온/죽은 시간을 전복시킨다/대지는 단절

을 꿈꾼다/모든 것이 모든 것에 순응하는 지휘계통/대지는 이렇게 혁명을 하는 것”이라며 해방사상의 새로운 경지를 형상화한다.

‘봉석’이라는 본명을 ‘무산(無産)’으로 바꾸고 ‘사노맹’과 같은 급진적 운동에 투신해 수배를 받았던 노동자 시인 백무산이 나아갈 문학전사의 길은 어디일까. 지난달에 펴낸 《길은 광야의 것이다》(창작과비평사)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집에서 그는 해방의 근본적 기획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불교의 선적(禪的) 비의의 세계로 침잠한다. ‘무소유’의 깨달음으로 ‘소유’를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저항의 논리를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박천홍 기자

추천해 주신 30인의 평론가는 다음과 같다.

강상희 권택영 김경수 김명인 김미현 김사인 김정란 김화영 류보선
박혜경 방민호 백지연 성민엽 신철하 우찬제 이경호 이광호 이희중 임규찬 정과리
정골별 정호웅 최성실 최원식 하응백 홍정선 황광수 황도경 황종연 황현산 (가나다순)

중독자의 시선으로 90년대를 노래하다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의 유하 시인

80년대가 정치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대중문화가 삶 속에 전면적으로 침투한 대중문화의 시대다. 대중문화의 이미지는 '스펙터클'이며 '소비욕망'이다. 대중가요와 광고가 날 것으로 등장하고, 욕망의 해방구 압구정동을 내세운 유하(36)의 시집은 별 이견 없이 90년대 대표작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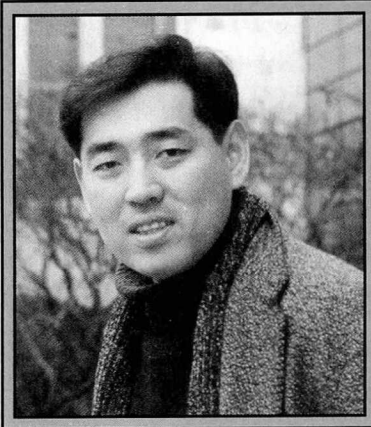
“고정관념을 전복하고 일상기호를 오브제화하는 데 시만큼 감쪽한 장르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달라지는 내면풍경을 담는 데 그만큼 기동력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대중문화를 시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것은 유하씨가 처음은 아니다. 황동규·오규원이 한발 앞섰다. 하지만 육체로서, 중독자의 시선으로 '키치'를 풍자하고 노래했다는 점에서 《바람부는 날이면...》는 변별된다.

다른 이들은 그를 '90년대적'이라고 하지만 시인은 80년대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고백한다.

“지금은 '압구정동'이라는 제목을 붙일 때 좀더 가치중립적이었더라면 하고 생각합니다. 천민자본주의를 냉소하는 정치적 상상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지요.”

같은 제목의 영화도 만들고, 한때 재즈음반을 사모으는데 탐닉하며 음반소개서 등을 펴내는 등 어영부영 놀며 살았지만 그 사이



《세운사가 키드의 사랑》을 펴냈다. 그 후 했수로 4년째 침묵하면서, 이제 대중문화를 선부른 풍자나 반성보다는 일상적 풍경으로 천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3월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쓴 연시들을 모아 작은 소품집을 펴낼 예정이다.

“20대에는 매혹을 쫓는 연애감정이 시를 불러냈지만, 지금은 매혹의 중심에서 있었던 나를 바라보고 추억하는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90년대 초반으로부터 99년까지 세상이나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진 것 같지만 통신매체를 통해 대중문화적 이미지로 모든 게 획일화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오히려 신화적 상상력으로 무장한 '시운동'이 있고, 한편으로 마당극과 영화가 공존했던 80년대가 훨씬 풍요로웠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해 말한다면 이제까지 우리 문학을 지탱했던 민족주의적 개념이 아직도 필요할까 의심스럽게 여긴다. 문학에서도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코스모폴리탄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 성장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아마 그의 다음 시가 그럴 모양이다.

—이현주 기자

간절하게 타오른 혼불 쓰기의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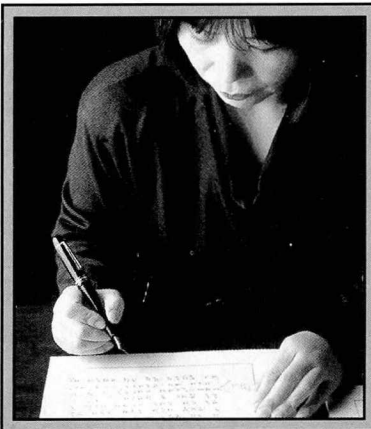
《혼불》의 작가 최명희

“나는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도 간절한 일이라 (중략) 나는, 그저 온 마음을 사무치게 갈아서 손끝에 모으고, 생애를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 파나가는 것이다.”(《혼불》 1·2부 '작가의 말' 중에서)

그랬다. 80년에 시작해 암으로 영면하는 98년 말까지 17년 동안 제5부 10권짜리 《혼불》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는 혼신을 다했다. 《혼불》 쓰기를 운명처럼 받아들인 그녀는 자신의 혼불이 사그라지는 순간까지 이부자리 하나 없는 방에 앉아 쇠를 갈아 붓을 박듯 글을 썼다. 병석에서도 그녀는 “아직 할 얘기들이 너무 많다”며 창작의 혼을 불태울 정도였다.

《혼불》은 그녀의 고향인 전주와 남원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억눌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꺼진 혼불을 환하게 지펴올리는 해원(解冤)의 한마당으로 한민족의 면면을 풀어냈다. 우리 민족이 가꿔온 세시풍속·관혼상제·음식·노래 등은 물론이고 민중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세밀화처럼 묘사하여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과 염원과 애증이 선연히 살아나도록 재현했다. 뿐만 아니라 민속학·인류학적 기록에 버금가는 민족의 표상을 모국어로 생생히 복원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지금 이토록 한 시대와 한 가문과 거기 거머굴 사람들의 쓰러진 혼불들은 저희들끼리 스스로 간절하게 타오르도록 불을 지피는 동안 그녀의 소망은 자못 소박했다.

“이 일을 위하여 천군만마(千軍萬馬)가 아니어도 좋은, 단 한사람 만이라도 오래 오래 나의 하는 일을 지켜보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박한 그녀의 소망과는 다르게(?) 97년 여름 '작가 최명희와 혼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혼자이기를 고집했다. 문단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혼불》을 쓰기 위해 매진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 영속하며 한국문학 속에 영롱한 빛을 발할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높은 지조와 정갈한 성품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가벼움으로 치닫는 한국문학에 대한 경고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혼불》을 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제대로 된 평가작업이 없다. 《혼불》을 다 시 시를 수 있는 평가작업이 진정 이뤄질 때다.

—오완진 기자